

광주 제2순환도로 '먹통' 하이패스 불만 폭주

7월 개통후 한달간 2곳 통행요금 미인식 5만 3000건

초기 시스템 불안정... "편하자고 설치했는데 되레 불편"

7월 1일부터 하이패스(무선 통행료 징수시스템)가 도입된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유덕영양소에서 통행요금 미인식 사례가 쏟아지면서 이용객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차량을 세우고 징수원에게 요금을 내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도입한 하이패스가 시스템 오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면서 되레 이용객 불편을 사고 있는 것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제2순환도로 송암·유덕영양소 하이패스 차선에서 발생한 통행요금 미인식 사례는 각각 1만1425건, 4만2689건이다.

같은 기간 송암영양소 하이패스 차선 통행차량이 72만7982대(4개 차선), 유덕영양소 258만2920대(6개 차선)인 것을 고려하면 통행차량 미인식률은 각각 1.56%, 1.65%로 파악됐다.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차량 100대 중 1~2대꼴로 '삐삐삐' 미납차량이라는 경고음을 들어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통행차량 미인식 비율은 하이패스 설치업체 측이 보증하는 1%를 웃도는 수치로, 광주시가 자체 파악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미인식률(0.8% 내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이다.

문제는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지목받고 뒤늦게 1200원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아도 이용객 가운데 상당수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정상 작동(즉시 결제)했는데,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미납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선 문제없는데 광주 순환 도로에선 시스템 먹통으로 고의 미납차량으로 의심받는 것도 모자라 뒤늦게 날아든 청구서를 들고 은행을 찾거나 전화기를 붙잡고 요금 결제를 하는 수고까지 떠안아야 하는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무더기 미인식 사례에 대해 "요금 납부를 피하려

고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 고객의 경우 단말기 위치를 차량 내부 전면에 놓지않고 한 곳에 처박아 두면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하지만 하이패스 설치·유지 업체 측은 ▲초기 시스템 불안정 ▲하이패스 개통 안내 부족 ▲선불결제 교통카드 11월 시행 안내 부족에서 비롯된 '고객 불편'으로 하이패스 도입 초기 광주시, 하이패스 설치업체, 순환도로 운영사 모두 일정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하이패스는 통행차량 전체의 99%까지 즉시 요금결제가 되도록 보증한다. 1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고 이용자 홍보가 좀더 이뤄졌더라면 고객 불만이 이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개월간 하이패스 주파수 인식 범위를 조정하면서 만족할 수준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됐고 선불결제 교통카드 결제가 도입되는 11월쯤이면 고객 불만이 완전히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7월 1일 개통한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영양소 하이패스 구간에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같은 날 하이패스가 도입된 유덕영양소, 송암영양소는 개통 초기 시스템 불안정 등의 이유로 통행요금 미인식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남도 추석절 맞아

제수용품 등 특별단속

전남도는 1일부터 13일까지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각 시·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민간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슈퍼마켓·재래시장·음식점이다. 조사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미 표시·표시 방법 위반·위장·혼합 판매 등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161품목 및 음식점 20품목이다.

조사·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희기자golee@

광주·전남경찰 해묵은 현안 풀렸다

신안경찰서 신설·동부경찰서 청사 내년 국비 12억·63억씩 반영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신안에 이르면 2020년 경찰서가 문을 연다.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8년 넘게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온 광주 동부경찰서도 2020년까지 재건축 또는 이전을 통해 새집을 마련한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를 분할해 3급지 규모의 경찰서를 신안군에 신설하는 '신안서 신설안'과 노후화된 광주 동부경찰서를 재건축 또는 이전하는 '동부서 이전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신안서 신설과 관련 토지매입

과 기본설계비로 11억9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고, 동부경찰서 이전을 위해 63억5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9~11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전남청은 신안서 신설에 1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청은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신안군청이 있는 신안군 입해읍에 부지를 마련, 내년 초 착공해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은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수요 등을 이유로 경찰서 신설이 이뤄져 오면서 목포서에서 관할해 왔다. 하지만 파출소 15곳, 치안센터 22곳 등 타 경찰서에 비해 지역경찰서 수가 많아 관리·감독에 어려

움이 있었다.

광주청은 동부서 이전에 모두 3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전을 위해 옛 광주여고, 학동, 계림동, 지원중 부지를 검토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부지는 5300㎡(1300평)에 불과해 재건축 후에도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부서는 1982년 개청 이래 건물 노후화, 외벽 균열·누수, 주차공간 협소 등 문제로 2008년부터 이전이 추진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5 해질 18:59
달출 05:42 달짐 18:55

환절기 건강관리 주의
대기불안정으로 5~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2/29	보성	소나기	20/28
목포	흐림	23/26	순천	소나기	22/30
여수	소나기	23/28	영광	흐림	22/28
나주	흐림	21/29	진도	흐림	21/28
완도	흐림	23/28	전주	소나기	21/29
구례	소나기	20/29	군산	구름많음	22/29
강진	흐림	21/28	남원	소나기	20/29
해남	흐림	21/29	홍산도	흐림	22/27
장성	흐림	21/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2.0~3.0	남~남서 1.0~2.0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	남~남서 1.5~2.5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5~3.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 1.5~3.0	남~남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02:14	썰물 07:26
	14:18	19:34
여수	밀물 09:04	썰물 02:53
	21:26	15:02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22/27	22/28	22/29	23/31	22/30	22/29	21/29

◇생활지수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한대나쁨
- 미세먼지

전남대 총장 간선제로 뽑는다

대학 구성원 투표로 확정

전남대가 간선제로 총장을 뽑기로 했다.

31일 전남대에 따르면 평의원회 주관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 20대 전남대 총장선출(안) 확정 투표' 결과, 간선제(안)가 확정됐다.

투표에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총 투표인 208명 중 1734명(투표율 85.51%)이 참여해 50.47%가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다.

간선제안의 핵심은 정책평가단과 현장평가를 거쳐 총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책평가단은 교수(168명), 교직원(24명), 조교(4명), 학생(4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책평가단에 참여하지 않

은 구성원들은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대는 정책평가단과 현장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상위 순위 2명을 뽑아 교육부에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전남대 교수회는 애초 교수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선출방식을 요구했지만 대학측은 간선제 방식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철 전남대 교수회장은 이와관련, "51%가 참여해 50.47%가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다."

간선제안의 핵심은 정책평가단과 현장평가를 거쳐 총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책평가단은 교수(168명), 교직원(24명), 조교(4명), 학생(4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책평가단에 참여하지 않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3만7000명... 오늘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1일 실시된다. 고등학교 1~2학년층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광주 66개·전남 105개 학교 등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27개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평가에는 광주 1만9411명,

전남 1만7187명 등 전국 수험생 6만 7389명이 지원했다.

9월 모의평가는 본 수능의 출제 방향·난이도를 점칠 수 있는데다, 수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수생 대부분이 응시해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6회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

2016.09.16(금)-09.18(일)

● 장소 전남 영광군 불갑사 관광지 일원

● 주관 영광불갑사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2016 Lycoris squamigera Festival

천년의 영광 상사화를 품다

'전국 노을1번지' 제7회 영광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10.1(토)~10.2(일), 백수 해수온천랜드 특설무대

영광군 YONGWANG-GUN

한수원 (주)한빛원자력본부